

8년만에 현장 복귀 윤제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죠”

국내 없던 오리지널 뮤지컬영화 도전
해운대·국제시장 쌍천만 이후 새 영화

윤제균(53) 감독은 과소평가받고 있다. 영화 좀 본다 하는 관객은 그를 깎아 내리기 바쁘다. 그들은 윤제균 영화의 이른바 상업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윤 감독이 영화로 돈을 번 건 많다. 그리고 그가 연출하고 제작하는 영화가 최대한 많은 대중을 만족시킨다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그가 감독으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 끌어모은 관객수를 보면 윤제균 영화라면 덮어놓고 비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내 최초 쌍천만 감독이고 제작자로서는 700만명 이상 본 작품이 2편, 600만명 이상 본 게 1편, 400만명이 본 작품이 1편, 300만명 넘게 본 영화는 3편을 만들었다. 이정도로 많은 사람이 윤 감독의 영화를 찾았다는 건 그가 만드는 영화에 관객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더 흥미로운 건 그의 필모그래피다. 윤 감독은 마치 안전한 영화만 만들어 온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가 만든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데뷔작 ‘두사부일체’(2001)는 2000년대 초 한국 코미디 영화 전성기를 시작한 작품이었다. 두 번째 영화 ‘색즉시공’(2002)은 국내에서도 섹스 코미디가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해운대’(2009)는 국내 최초 대형 재난영화였고, ‘국제시장’(2014) 이전에 한 인물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아우른 작품 역시 없었다.

그리고 이제 윤 감독은 뮤지컬 영화 ‘영웅’을 내놨다. 한국은 뮤지컬 영화의 불모지, 한국 창작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건 ‘영웅’이

최초다. ‘영웅’을 개봉을 앞두고 만난 윤 감독은 “내가 크리에이터인 이유는 도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평생을 도전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대화하면서 윤 감독이 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남들은 제게 100을 원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라는 거죠. 그런데 전 100을 하지 않아요. 제 목표는 200을 하는 겁니다.”

-‘아바타:물의 길’과 맞대결을 하게 됐다. 기분이 어떤가. 게다가 ‘국제시장’ 이후 8년 만에 내놓는 새 영화다.

“많이 떨린다. ‘국제시장’ 다음 작품이라서 부담감도 크다. 불안하기도 하다. 무섭기도 하다.(웃음)”

-요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 어떻게 기분 전환하고 있나.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웃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은 흥보가 필요한 상황인니까, 최선을 다해서 흥보하고 있다. 간절하면 이뤄진다. 흥보하는 데 0.1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뭐든 다 할 거다.”

-‘아바타:물의 길’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잖나.

“개봉일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정한 날짜다. 언제 개봉하던 영화가 좋으면 관객이 사랑

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관객이 가장 궁금해 할 질문부터 하겠다. 왜 갑자기 뮤지컬 영화를 택했나. 이전에 비슷한 장르 영화를 만든 적도 없고, ‘해운대’(1132만명) ‘국제시장’(1426만명) 성공 이후 크게 무리할 필요도 없었다.

“순서가 잘못됐다. 뮤지컬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웅’을 한 게 아니다.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뮤지컬 영화를 한 거다. ‘영웅’이었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를 했다는 게 더 정확하다. 뮤지컬 ‘영웅’을 보고 크게 감동 받았다. 이 작품 영화화를 생각한 게 2012년이다. 그때부터 뮤지컬 영화를 공부하고 준비했다. 난 ‘영웅’을 보기 전까지 뮤지컬 영화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각색이 있던 하지만 비교적 원작을 충실히 따라간다. 형식 면에서도 뮤지컬 요소가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정통 뮤지컬 영화에 가깝다. 이런 선택 역시 일종의 도전으로 보인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세 가지에 관해 얘기하면 답이 될 것 같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뮤지컬을 본 관객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종종 원작 팬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을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기로 했다. 배우들에게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대부분을 라이브로 소화해달라고 한 건, 앞서 이 작품을 무대에서 본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영화 ‘영웅’은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원작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맞다. 절반의 익숙함과 절반의 새로움을



선택한 거다. 그 중 한 가지가 설희 캐릭터를 보완한 것이다. 뮤지컬에선 설희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물론 뮤지컬은 라이브로 보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게 큰 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설희가 뮤지컬처럼 나오면 영화 관객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희에게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그 미션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했다. 또 회령 전투 장면을 추가했다. 뮤지컬에선 언급만 되지만 영화에선 실제 전투 장면이 있다. 이 전투는 안중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 속에서 그려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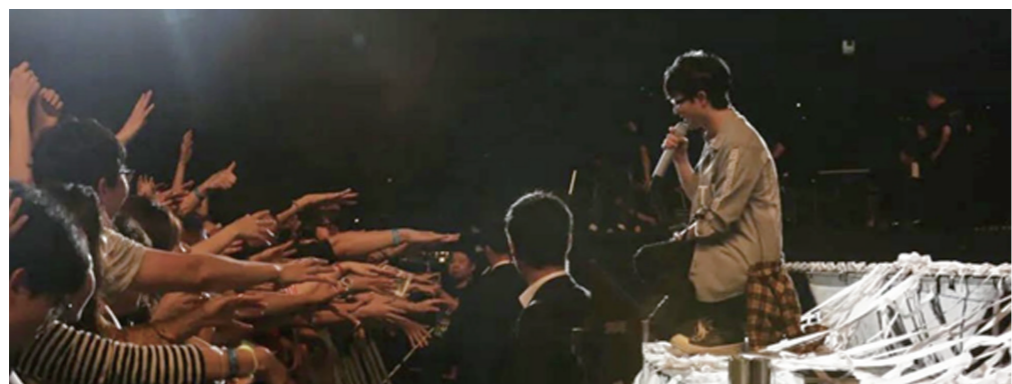
-정말 일을 많이 한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

“나이 오십 넘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것 아닌가. 힘든 게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날 알아봐주고 일을 같이 해보자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물론 스트레스는 있다. 하

지만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한 스트레스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감독이고, 제작자이고, 경영인이기도 하다. 영화·드라마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줄 수 있나.

“음...진심을 다해서 말해주고 싶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 콘텐츠 업계로 많이들 뛰어 들었으면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정말 할 만한 시장이다. 한국 콘텐츠 잠재력은 매우 매우 높다. 절대 반짝 하다가 사라질 분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베풀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콘텐츠 업의 직업 만족도는 매우 높다. 누군가 내가 만든 걸 보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 그건 무엇보다 바랄 수 경험이다. 물론 처음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쉬운 일이 있다. 그래도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만한 곳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데뷔 30주년’ 서태지 “분기점에 서있는 듯”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문화 대통령’ 서태지(50·정현형)가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서태지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의 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소식은 자신의 새 음반 소식일 것이라면서 “몇 년 간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팔로(팬)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있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일 년 내내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를 잘 해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 믿지만 현재의 판단으로는 그게 한 두 해로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 지금은 설명해줄 수가 힘들지만 딱히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니 괜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저 최선을 다해 답을 찾고 있는 것 뿐이니 언제가는 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약을 해줄 수가 없기에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가ם 생존 신고는 할 테니 걱정은 말고 당분간 잠시 내려두고 조금 더 호흡으로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는 마음이다.

그럼에도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서 많이 섭섭했을 거라며 얼마 전엔 팬들이 예쁜 마이크를 선물해줬는데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이 스페셜한 마이크를 올해는 사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번 공연 때는 꼭!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 주어 너무 고맙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만 20세이던 1992년 3월23일 양현석(52)·이주노(55)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정규 1집 ‘난 알아요’로 국내 음악계 패러다임을 전향했다.

지금 K팝으로 통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가 된 ‘랩 댄스’의 형태를 고착화시킨 주인공이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팝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다. 끝로별 수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전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있었고, 그 이전에 서태지가 있었다. 서태지는 국내 열정적인 팬문화의 시조인 서태지매니아라는 팬덤도 이끌었다.

공백기간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년 서태지 매니아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소중해왔다.

서태지는 이날 “2022년은 우리나라와 우리 지구에 사건, 사고, 전쟁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았다”며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엄원했던 엔데믹이 와서 딸인 담이가 홈 스쿨을 마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방송을 했는지 뒤늦게 코로나에 걸려 후각을 완전히 상실 했었다”고 전했다.

다만 “롱 코비드일까 은근히 걱정이 됐다. 다행히 천천히 회복이 됐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이번 성탄절에는 꼭 회상한 이야기를 전하려 했는데, 실은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아쉽다는 마음이다.

뉴시스

‘아바타:물의 길’ 500만명 ↑ …600만도 무난할 듯



영화 ‘아바타:물의 길’이 5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개봉 12일만이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5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아바타:물의 길’ 포함 총 6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아바타:물의 길’은 25일 오전 7시 현재 누적 관객수 537만4611명을 기록 중

지난 25일 오전 7시 현재 누적 537만명 기록

이다. 전반기까지 관객수는 480만2925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500만명을 넘긴 작품은 ‘아바타:물의 길’ 포함 ‘범죄도시2’(1269만명) ‘탑건:매버릭’(817만명) ‘한산:용의 출현’(726만명) ‘공조2:인터내셔널’(698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등 모두 6편이다.

‘아바타:물의 길’은 600만 관객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오전 8시35분 현재 이 영화 예매 관객수는 88만명으로 예매 2위 ‘영웅’(14만8033명)을 밀쳐내 앞섰고 있다.

‘아바타:물의 길’은 2009년 외국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긴 ‘아바타’(1333만명)의 후

속작이다. ‘아바타’는 총 수익 29억 달러(약 3조7640억원)로 역대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영화는 전작에서 부부가 된 ‘설리’와 ‘네이티리’가 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작에서 사망한 ‘쿼리치’가 아바타로 다시 태어나 설리와 네이티리에게 복수를 감행하자 설리·네이티리 가족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 부족 멧케이나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샘 워딩턴과 조이 살다가 다시 한 번 각각 설리와 네이티리를 연기했고, 쿼리치 역의 스티븐 랭도 또 한 번 출연했다. 또 시고니 위버, 케이트 윈슬렛 등도 함께했다.

신동엽, 세번째 KBS 연예대상 “또 10년 기다려야 하나”

2002·2012년 수상 이어 10년만

개그맨 신동엽이 20주년을 맞은 ‘KBS 연예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신동엽은 24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2 KBS 연예대상’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KBS에서만 세 번째 수상이며, SBS 연예대상(2016·2021)을 포함하면 통산 다섯 번째다. 올해 개그맨 이경규와 개그우먼 김숙, 아나운서 전현무, 그룹 ‘코요태’ 김중민과 경쟁해 영예를 안았다.

신동엽은 2012년부터 12년째 KBS 2TV 불후의 명곡 MC를 맡고 있다. “잠 않겠다. 아주 간혹 올래는 내가 받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대상)을 못 받았다”며 “사실 오늘은 정말 기대를 안 하고, 프로그램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올해 활약을 하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께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10년 넘게 불후의 명곡을 하면서 사석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기회되면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아이폰으로 듣고, (TV)화면으로 보

고, OTT로 찾아보지 말고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콘서트장에 가서 들어라’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의 가수들의 노래를 바로 옆에서 듣는 효사를 누리고 있다.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다르듯 흥분할 수 없는 감동과 뜨거움이 느껴진다.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가수들이 일일이 호명하고, 또 참석할 수 없기에 대표 상을 준 거라고 생각한다.”

신동엽은 “상을 받은 것보다 연예대상 MC를 본 횟수가 훨씬 많다. 예전엔 연예대상이 따로 없고 연기대상의 한 코너로 상을 줬다”며 “2002년 KBS에서 첫 연예대상이 생겨 MC를 보고 ‘해피투게더’로 대상을 받았다. 10년 후 ‘안녕하세요’로 (대상을) 받고 또 10년 후에 받아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또 10년 기다려야 하는거야?”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된다. 상을 받던 못 받던 10년 후에도 KBS 연예대상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시정자로서 ‘왜 이렇게 상을 많지 주지?’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도 느낀다. 근데 열심히 한 동료들이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된다. 매년 새로운 드라마가 나



오지만, 예능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자리 잡기 쉽지 않다. 연예대상을 보면서 “그 나물이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니 축하해 달라. 상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서 제작진,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고 하니 이번에도 하지 않겠다. 내년에 KBS의 많은 프로그램이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